

삼성전자, 반도체 구매 90억달러

2006년 HP · Nokia · Dell 이어 4위 ... LG전자는 40억달러로 9위

2006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매한 전자기업은 HP이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4번째와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약 90억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구매해 4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05년 반도체 구매액이 약 80억달러로 Sony(90억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Sony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단계 올랐다.

LG전자도 2005년과 비슷한 약 40억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구입해 2005년에 이어 구매 순위 9위를 차지했다.

2006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매한 전자기업은 HP로 2005년에 이어 120억달러 상당의 반도체를 구매했다.

이어 Nokia와 Dell이 HP와 5억달러 정도의 차이로 반도체 구매순위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모토로라와 지멘스는 반도체 구매액이 2005년 약 70억달러에서 2006년 8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각각 6위, 7위를 지켰으며, Toshiba(50억달러)는 8위, Apple(약 40억달러)은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도체 구매순위 톱10의 2006년 전체 반도체 구매액은 약 840억달러로 2005년 770억달러보다 약 9% 늘었으며, HP와 노키아, 델 등 상위 3사의 구매액이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했다.

톱10의 반도체 사용비율은 데이터 처리 39%, 통신 38%, 가전 1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는 2007년 세계 반도체 매출규모가 2858억달러로 2006년 2585억달러에 비해 10.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08년에는 세계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8.7%로 2007년보다 낮아지는 데 이어 2009년 3.7%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2010년 7.4%로 다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26>